

“광주시 일자리사업 성과 관리 소홀”

새누리 황영철의원 국감 자료 “연 4000억 쓰면서 취업인원·취업률도 몰라”

광주시가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사용하면서 취업률 등 사업성과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1만9189명을 대상으로 4319억8000만원 규모의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도 1만7973명에게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4380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일자리

지원과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훈련 등 직업훈련 ▲청년장조 기업 지원 등 창업지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 고용장려금 ▲광주지식산업센터 건축 등에 쓰인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 가장 많은 2394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이처럼 일자리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이와 관련한 취업인원·취업률·고용유지율과 같은 사업실적을 점검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다른 시·도와 달리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영철 의원은 “현재까지 자료가 집계된 다른 광역시·도들은 파악 가능한 성과 지표 항목들에 대해 꼼꼼히 집계하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서 “반면, 광주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업인원이나 취업률 등 사업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사업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사업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방만한 행정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면서 “아마추어식 행정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료 요구 기간이 3일 간으로 너무 짧아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항목별 사업마다 취업인원, 취업률, 고용유지율을 모두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

전국시도지사협 부회장 선출

광주시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7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제10대 대한민국의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과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행사에 맞춰 열렸다.

부회장은 윤 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감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출됐다.

회장은 지난 5일 총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선출된 바 있다. 이들 임원단의 임기는 1년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1999년 설립되었으며, 시·도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호남 달빛어울림 茶會

동서화합과 옛것과 현대 차문화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달빛어울림 차회(茶會)’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과 예술극장 등에서 열렸다. 박주선 국회의장과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8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린 달빛어울림 차 전시회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 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명예대회장을 맡고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남)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 의원이 대회장을 맡았다.

동서화합과 옛것과 현대 차문화의 새로운 만남을 위한 ‘달빛어울림 차회(茶會)’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과 예술극장 등에서 열렸다. 박주선 국회의장과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 8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린 달빛어울림 차 전시회에 참석해 전시장을 둘러 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명예대회장을 맡고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남)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 의원이 대회장을 맡았다.

<광주시 제공>

윤장현 시장 인도 마힌드라 회장 만나

다음달 인도 방문 면담 추진

차 100만대 관련 협업 주목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는 11월 인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마힌드라 그룹을 방문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 2위 광주시와 인도의

글로벌 카메라케 그룹과의 협업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마힌드라 광주 투자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1월 중으로 예정된 윤 시장의 독일 투자 유치 방문 일정에 맞춰 인도 최고 무역장이자 상업 중심지인 뭌바이에 위치한 마힌드라 그룹 본사 방문을 타진 중이다.

본사 방문과 함께 아난드 회장, 파안 고엔카 전무이사 등 그룹 경영진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윤 시장은 앞서, 지난 3월과 8월 마힌드라 한국법인의 밀립 손다람 사장과 만나 ‘메이드 인 광주’ 마힌드라 전기차 생산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1945년 설립된 마힌드라 그룹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진출해있는 인도의 대표적 자동차 부문 다국적 기업으로 2010년 쌍용차를 인수한 뒤 ‘티볼리 돌풍’을 낚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룹 내 마

힌드라&마힌드라는 SUV, 트럭, 세단, 트랙터, 전차 2·3륜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인도 최대 자동차회사다.

광주시는 애초 9월 중 인도 방문과 아난드 회장과 윤 시장 간 첫 면담을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11월로 늦춘 상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분야에서 마힌드라와 광주의 요구는 서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며 “마힌드라의 투자 결심과 시기가 현재로서는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조이퉁(九龍)자동차 한국 법인 설립에 이어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 마힌드라의 광주 투자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도시숲 10년 연속 녹색도시 선정 영예

여수 용천 해양도시숲·충민로 너울 가로수길 우수상

산림청이 주관한 2016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여수 용천 해양도시숲과 충민로 너울 가로수길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전남 도시숲이 10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은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는 산림청이 해마다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우수한 지자체를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사업이다.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한다.

여수 용천 해양 도시숲(25.5ha)은 바다를 조망하는 경관이 아름답고, 심어진 나무는 도로 확·포장 등 각종 개발공사에서 제거될 후박, 은행, 느티 등 큰 나무를 나무은행 사업을 활

용했다.

특히 ‘숲 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무 심기 행사, 환경의 날 행사, 시민 기념의 숲 나무 심기 행사 등 다양한 시민 참여행사와 각종 문화 행사로 시민들과 함께 조성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민로 너울 가로수길(2.5km)에는 기존 왕벚나무 가로수길에 기후 변화를 대비한 지역 특색을 살린 동백, 애기동백, 홍가시, 당총려 등 난대산록수를 심었다.

전남도는 도시산림공원 24개소, 삼치숲 353개소, 명상숲 144개소, 나눔숲 60개소, 가로수 6503km 등 다양한 숲을 확대 조성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물 순환도시 만들기’ 호령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분야 공모전 대통령상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부와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한 ‘2016 지속가능발전분야 공모전’에서 ‘물 순환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물 순환도시 광주 만들기’는 민·관·학이 이뤄낸 창의적 모델로 주목받아왔다.

광주시는 지난 5년간 습지생물다양성과 물 순환도시 세미나를 꾸준히 열어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실천 사업으로 추진한 생태문화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직접 빗물을 활용해 텃밭을

조성하고, 학교에서도 빗물 정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삶의 현장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인정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상 수상으로 상금 500만원도 함께 받는다”며 “공모전 수상은 행정과 시민의 협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광주시 물 순환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1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환경부 공모사업인 ‘2016년 물 순환 선도도시’에 뽑혀 국비 207억원의 확보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檢, 광주시 비리의혹 수사 환부만 돌려내야”

국민의당 광주시당 촉구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7일 검찰의 광주시 김 모 전 정책자문관 관련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시민 불만과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해(수사) 신속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전 정책자문관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광주시에 대한 압수 수색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규모로 진행됐다”면서 “연이은 대규모 수색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수색의 대상이 전 정책자문관인지 광주시청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여

론이 지배적이다”며 “공직사회의 경직은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광주시민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시당은 “외과의사가 환자의 환부만 확실하게 도려내 병을 고치듯 검찰의 수사도 신속하고 명확하게 불법행위를 일단 하되 광주시민의 불편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에 대해서도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개혁의 수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대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 광주천변로

유스퀘어 터미널 | 신세계 백화점 | **태영21병원**

백운동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산토리니섬의 하얀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해안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석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709실)

* 기념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금 일부를 납부 시 약 6% 할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책자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벨리체 송아클럽	가제 마리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여-리프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기념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념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성수기 주중 50%	캐시 회원 요금의 50%
				비수기 주중 무료	

전국 13개 혁명 리조트 - 비발디파크(스키월드/오션월드/엔터테인먼트) - 소노벨리체 - 말리노 골프 앤 리조트 - 울머치 호텔&리조트 양양 -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대명리조트 부산 - 대명리조트 광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가제 마리나 - 영일호텔 아수 - 영일호텔 고양

| 패밀리/스위트 납입계약 | 예금주(주)대명레저산업 | * 지정 계좌로 입금한 입회금만 유효합니다. | 우리은행 1005-900-997807 국민은행 614701-04-002581 신한은행 295-05-061967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